

‘참여극’ 무대와 객석 경계를 허물다

공연가, 상호작용형 공연 다채 자아실현 원하는 MZ세대 인기몰이 “참여 부담” “관객 흥미” 엇갈린 반응 비지정석·배려석 제공 등 시도

공연가에 ‘인터랙티브 공연(참여극)’이 쏟아지고 있다. 관객들이 직접 보조연기자 역할을 맡게 되는 참여극은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MZ세대 관객 등을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22일(오후 4시)부터 7일까지 2·4주차(토요일)마다 전일빌딩245에서 진행 중인 ‘버싱 헬린지’는 아티스트와 함께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공연을 표방한다.

첫 회차에는 윈디켓, 조재희·최민석이 출연했으며 사전에 신청한 일반인 참가자 누구라도 무대 중간에 자신을 소개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

지난 14~16일 펼쳐진 공연 ‘얼굴과 얼굴-마주; 봄’도 흥미롭다. ACC재단이 0~1세를 위해 준비한 작품이며 무대 위에는 어린이 관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어린이 관객들이 ‘오감 체험’을 하는 동안, 부모들은 인근에 설치된 부모석에 머무르며 상호작용을 했다.

상반기 광주 공연가를 회상해 보면 다채로운 인터랙티브 공연들이 기억에 남는다. 지난 4월 19~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펼쳐졌던 ACC 재단의 ‘FOOD’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공연은 무대 한가운데 기다란 테이블을 설치한 채 관객과 만찬을 즐기는 구성이었다. 관객들은 좋아하는 메뉴 레시피를 들려주거나 소품을 옮기는 보조 출연자 역할을 맡아야 했다. 단순히 객석에 앉아 관람만 하는 정형성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지난달 15~18일 진행했던 드라마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도 참여 요소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작품이었다. 극중 관객들은 직접 ‘5월 투사’ 역할을 맡아 5·18과 관련된 개인적 사연을 풀어냈다. 광주예술의전당 등에서 선보여 온 윤우상(정신과의사) 기획자의 치유심리극 ‘공감’도 뇌리를 스친다. 극 중 지원자들은 제마다의 사연을 관객들에게 공유했다.

이 밖에도 ACC는 지난 3월 아시아 최대 규모 ‘블랙박스 극장’을 론칭하며 몰입형 사운드, 체험



광주 학생창작사를 기리는 극단 밝은밤의 추모극 ‘달달아 무너진 세상’에서는 관객이 배우의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대목이 있다. 기사가 배우들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를 건너자 즉석에서 대사하는 장면.

형 작품 등 ‘관객체험형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극을 관람하러 왔음에도 정작 ‘직접 참여’한다는 점 자체는 부담스러워 하는 관객도 있다.

‘관객참여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예매했음에도 정작 공연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역할을 맡게 되거나, 다른 관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니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공연 관람을 즐기는 박승운(32·동구) 씨는 “참여극을 자주 관람하는 편이지만 정작 ‘직접 참여’하는 것은 꺼리게 되는 면도 있다”며 “인터랙티브 공연의 효용에 대해 공감하고 많이 창작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공연 중 지목을 당하면 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했다.

공연계는 이 같은 일부 관객의 입장을 고려, 참여극 형태는 유지하되 관객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스튜디오 틴은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예매 소식을 알리며, 16년 만에 관객 ‘배려석’ 부활을 예고했다.

극을 기획한 주식회사 삼형제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도입한 ‘배려석’은 공연 참여 자체는 지양하더라도, 앞자리에서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싶은 관객들을 위한 좌석 개념이다”며 “출연진은 사전

에 배려석 존재를 인지하고 관객들에게 참여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한다”고 했다.

앞선 관객 참여극들이 도입한 방법들도 이목을 끈다. 비지정 좌석으로 진행했던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앞자리에 스탠딩석(겸 시팅석), 뒤편에 ‘배려석’이 존재했다. 이 자리에는 노약자 뿐만 아니라 기호에 따라 직접 참여를 원하지 않는 관객 등이 앉아 있었다.

당시 배우들은 배려석까지 찾아와 적정 선에서 호응을 유도했다. 진행을 보조했던 공연기획과 학생들 또한 배려석 존재를 인지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도왔다.

‘FOOD’의 경우도 유사하다. 예매 시부터 참여석(테이블석)과 배려석 구분을 뒀으며, 관객들은 객석에 따라 공연 참여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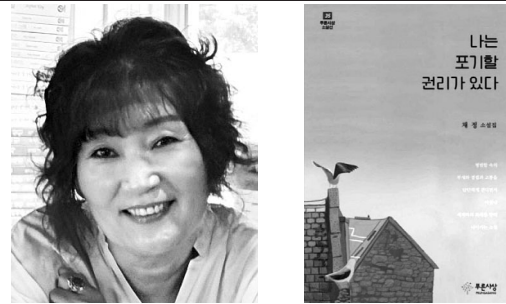
푸른연극마루는 이렇듯 대표는 “관객은 희곡의 4요소 중 하나일 만큼 극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며 “관객들이 이머시브 공연에 직접 참여해 ‘공동 창작자’로서 역할까지 수행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려석의 도입, 다양한 참여극적 시도가 공연예술 지평을 확장하고 관객들이 작품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동료작가 소설 읽기’ 채정 작가와 만남

내일 비트윈 디제이 아카데미 학원

이미란 소설가가 진행하는 ‘동료작가 소설 읽기’ 다섯번째 시간에는 채정 작가의 작품집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를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비트윈 디제이 아카데미 학원 1층(광주시 동구 구성로 156-5, 비트윈 빌딩) 채정 작가는 지난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등고선’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음악을 좋아해 어느 합창단에 소속돼 활동했다. 산시음악회나 고택체험행사의 음악회에 초대돼 솔로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대 국문과 교수를 퇴임하고 ‘동료작가 소설 읽기’를 이끌고 있는 이미지란 소설가는 “동료작가 소설 읽기”는 소설을 쓰며 창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작가들이 소설을 매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며



채정 작가

“서로에게 창작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성장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정말이지, 소문대로 ‘골목자옥’이었다.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중세의 도시였다. 구글맵을 켜고 나섰지만 좀처럼 행선지는 나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몇몇 사람에게 물어봐 겨우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Peggy Guggenheim Collection)이다. 미국 출신의 전설적인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1898~1979)의 이름을 딴 곳이다.

흔히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둘러본 사람들은 두번 놀란다고 한다. 세계적 명성에 걸맞지 않은 소박한 외관과 글로벌 미술관들에 뒤지지 않은 화려한 컬렉션 때문이다. 아담한 저택을

Boschetti)가 지은 미술관은 베네치아 시내를 가로지르는 대운하와 인접해 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 간 이 곳에서 기거했던 페기 구겐하임은 타이타닉호 침몰로 사망한 부친에게서 거액을 상속받은 후 파리로 건너가 마르셀 뒤샹을 통해 미술에 입문했다. 이후 1938년 런던에 ‘구겐하임 전느화랑’(Guggenheim Jeune)을 열고 ‘액션 페인팅’의 대가 잭슨 폴록을 비롯해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르네 마그리트, 막스 에른스트, 살바도르 달리 등과 교류하며 큐비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등의 명작들을 손에 넣었다.

사실, 뉴욕현대미술관 등 내로라 하는 미술관

너희가 컬렉션을 아느냐

리모델링해서인지 빼어난 건축미와는 거리가 있지만 전시장에 내걸린 ‘작품’들은 하나 하나 미술교과서에 나올법한 ‘문제작’들이다. 기자가 최근 다녀온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4월 20~11월24일)의 뻘뻘한 취재일정에 이곳을 넣은 건 그 때문이다.

변변한 이정표 하나 없어 ‘미술관 가는 길’이 고행이지만,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른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컬렉션이다. 복잡하기로 유명한 베니스의 골목길을 헤매더라도, 작품 앞에 서면 저간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희열을 느끼게 한다.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창립자인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 페기 구겐하임의 저택과 소장품이 모태가 된 곳이다. 미술관(Museum)이 아닌 컬렉션(Collection)이라는 ‘간판’을 단 것도 그런 이유다. 1750년대 이탈리아 건축가 로렌초 보스체티(Lorenzo

들의 컬렉션은 페기 구겐하임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좁다란 골목길을 헤매지 않아도 찾기 쉬운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파리 퐁피두센터나 빌바오 구겐하임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랜드마크가 아닌 데도, 페기 구겐하임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컬렉션이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베니스 비엔날레와의 시너지로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특별한 뭔가를 지니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화려한 랜드마크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독보적인 콘텐츠를 자랑하거나. 그런 점에서 비엔날레의 개최도시인 광주는 베니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두 도시의 간극은 뚜렷하다. 콘텐츠의 경쟁력이다. 미술관의 힘, 나아가 문화도시의 품격은 컬렉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문화·여행칼럼, 문화선임기자>

전남 10곳에 문화체험·국악공연 배달

문화재단 ‘6월 문화요일, 섬요일’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구석구석 문화배달: 6월 문화요일, 섬요일’을 도내 10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문화사업과 연계해 영광, 구례 지역에서 문화체험, 국악공연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 오후 5시 영광군 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문학산책 시를 시도하다’가 펼쳐진다. ‘깨움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대한민국 백백지 공연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오후 6시부터 강진(강진읍 영광로 3)에서 ‘여정의 달’, 같은 시간 곡성(곡성동 들말센터)에서 ‘문화로운 광장’도 펼쳐진다.

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섬진강이 품은 문화레저파크’는 오는 29일(오후 4시) 구례 서시천 공원 일원에서 진행한다. 조선대 청라봉사단, 자라는 공동체 등이 참여하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쿠키클래스, 아트피크닉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28일 해남(해남문화관광재단), 29일 보성(단미회), 고흥(고흥군 문화도시센터), 30일 장흥(재단), 완도(전남사랑책)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계속된다. (우천 취소됐던 나주, 장성, 무안 지역 행사는 향후 추가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영광, 구례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화요일’ 행사는 수행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